

## 부모간의 갈등과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

이 정 미\* (한국도자기부설 아동가족상담센터 상담원)

김 영 희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부적응에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해서 부모간의 갈등(갈등 빈도, 표출적 갈등, 숨겨진 갈등)과 아동·청소년의 부적응과의 관계를 밝혀 내어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청소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동·가족 상담 현장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세운 이론적 모델의 검증을 통하여 이루어 졌는데 부모간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에 의하여 초등학생, 중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각각 독립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74명과 중학생 439명, 인문계 고등학생 311명, 실업계 고등학생 305명으로 총 1,329명이었다.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수집되었으며, 분석방법은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LISREL VIII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표출적 갈등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내면화 부적응과 외면화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표출적 갈등이 내면화 부적응과 외면화 부적응,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해서 내면화 부적응과 외면화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숨겨진 갈등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숨겨진 갈등이 외면화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자아존중감이 내면화 부적응과 외면화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 가족 환경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가족의 심리적 환경의 하나인 부모간의 갈등을 다르게 지각함에 따라 부모간의 갈등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실업계 고등학생 모두 같은 구조적 모델을 나타내었다.